



‘흡연으로 2년간 500만 명 사망’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세계에서 2년 동안 5백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 대회에서 발표됐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조너던 엠 사멧’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인구의 담배로 인한 질병 부담’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97년과 2002년 2년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세계적으로 5백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흡연을 하는 남성의 경우 위험 부담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멧 교수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흡연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큰 위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엠뉴스 2004. 9.16)

저소득층 영·유아 무료접종 확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5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하위소득계층 20% 가정의 영·유아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달 중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13종이다.

정책위 허윤정 전문위원은 “전염병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이어야 해당 전염병을 퇴치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70%에 달해 전염병 퇴치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 차원과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연간 18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엄청난 의료·사회비용을 감안하면 선진국처럼 반드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9. 5)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지원

정부는 최근 불황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실태를 조사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추가하고 그보다 소득수준이 조금 낮은 ‘차상위층’의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상위층 의료지원 예산 529억 원과 자활사업지원 예산 301억 원 외에 추경예산 150억 원 및 로또복권기금 219억원이 자활사업과 위기가정 지원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만성·회귀난치성 질환자는 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 회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으로 분류돼 병·의원 이용 시 급여대상 의료비의 전액이 지원되고, 2종인 만성질환자는 입원진료의 경우 15%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일보 2004. 9. 3)

심장질환 돌연사 국민인식 낮다

심장질환자들은 대부분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입원한 뒤에야 자신의 질병에 대해 깨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순환기학회는 제2회 ‘대한민국 심장수호프로젝트’ 캠페인을 맞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16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3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급성관상동맥중후군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말한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이 대표적인 예로 심장마비 때문에 생기는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슴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뒤에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7%에 이르렀다. 심장발작 전까지 건강에 자신 있었다고 말한 사람도 62%나 됐다. 31%는 가슴 통증을 느꼈을 때 소화불량 등 소화기능의 이상으로 여겨 손가락을 따는 등의 민간 요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냥 한 시간 이상 참았다는 대답도 21%나 됐다.

이에 비해 가슴 통증을 느낀 뒤 바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39%, 119 등에 연락한 사람은 7%로 낮았다.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전문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가 40%, 1~6시간이 37%, 하루를 넘긴 경우도 12%나 됐다.

김기식 순환기학회 총무이사는 “돌연사의 위험을 예고하는 가슴 통증은 증상이 나타난 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민간요법을 해 보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버려두는 등 전문의료기관을 찾는 시간이 지체돼 돌연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4. 9. 14)

‘지나친 살빼기’ 골다공증 우려

과도하게 몸무게를 줄이면 골다공증을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와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임수 전임의는 6일 45살 이상 402명(남녀 각각 201명)의 골밀도를 측정하면서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보면 여성은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를 줄이면 골밀도가 1kg당 0.0062단위만큼 낮아지며, 지방을 줄이면 1kg당 0.0055단위만큼 낮아졌다. 이에 비해 남성은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를 1kg 줄이면 0.0054단위, 지방을 1kg 줄이면 0.0024단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조 교수는 “남녀 모두 몸무게를 줄이면 골밀도가 떨어지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지방을 줄여도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를 줄이는 것과 비슷하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경우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량을 줄이더라도 근육량을 늘려 몸무게는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줄어드는 것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흡연이 가장 큰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 금연과 적절한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본> 최근호에 실렸다.

(한겨레 2004. 9. 6)

“30대 흡연자 심장마비 위험 5배”

30대 연령층에서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 비해 심장마비를 겪을 위험이 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핀란드 역학자인 마르쿠 마호넨 연구팀이 지난 1985-1995년 사이 전세계 21개국을 상대로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심혈관계 질환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조사팀이 이 기간에 33~64세 남성 1만 8천762명, 여성 4천47명 등 총 2만 2천809명의 비치명적 심장마비 병력을 추적한 결과 35~39세 연령군에서는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 중 80%가 흡연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령대의 흡연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9배 높았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성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5.3배나 높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의학협회(BMA) 전문지인 ‘토바코 콘트롤(Tobacco Control)’에 게재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04. 8. 25)